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6.04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집행위,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발표(5.28)
- ② 집행위, 유럽 연구기술 인프라 전략 의견수렴 결과(6.2)
- ③ 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 참여확대 성과 검토 미흡 ... 유럽의회 전담팀 지적(5.28)
- ④ 혁신적 연구에 불리한 유럽연구위원회(ERC) 평가 구조, 고위험 연구 지원 본래 취지 약화해(5.27)
- ⑤ ERC 워크프로그램 2026~2027, 신청방식 및 평가절차 변경(6.3)
- ⑥ 유럽우주국(ESA), 스위스에 딥테크 혁신센터 개소 ... 우주 분야 연구성과 상용화 가속 기대(5.28)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집행위,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발간(6.4)
- ② 유럽대학교협회(EUA), 지속가능한 학문 커리어를 위한 핵심 원칙에 관한 보고서 발간(5.27)
- ③ 유럽통계청, 제3국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무역 증가 통계 발표(6.3)
- ④ (SB펀딩레이더) 양자 관련 EU 주요 공고(6.3)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소셜미디어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② (성공사례) 유럽 주요 도시를 위한 건강 회랑 공동 설계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집행위, 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 발표(5.28)

-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Choose Europe to Start and Scale’ 제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을 공식 발표
 - 동 전략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 중인 ‘Choose Europe’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 분야에 이어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은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고급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전략적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럽의 미래 핵심 요소임
 - 그러나 유럽 내 많은 스타트업이 연구실 수준의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이전하거나 스케일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집행위는 글로벌 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7년 말까지 전략의 이행을 평가할 예정
- 전략은 스타트업의 전 생애주기(창업-성장-성숙-정착)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5대 분야에 대한 핵심 조치 제시
 -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단일시장 전략에 따라 규제 간소화, 행정 부담 경감, 국가 간 제도 조화 등이 요구됨
 - 집행위는 파산·노동·조세 분야의 간소화를 위한 ‘28번째 체제(European 28th regime)’를 제안하고, ‘유럽 비즈니스 월렛(European Business Wallet)’ 도입을 통해 경제주체의 디지털 신원 기반 공공 서비스 이용을 간편화할 예정. 또한,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도 추진
 -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벤처캐피탈 시장 확대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가 핵심

- '저축 및 투자 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럽혁신위원회(EIC) 기능 확대·간소화, 딥테크 기업을 위한 '스케일업 유럽 펀드(Scaleup Europe Fund)' 신설 및 '유럽 혁신투자 협약(European Innovation Investment Pact)'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
- (시장 진입 및 확산 지원) 'Lab to Unicorn' 정책을 통해 유럽 전역의 대학 생태계를 연결하는 유럽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허브를 구축할 것
- 이는 지식재산(IP) 상업화 및 스피노프 창출 시 학술 기관과 발명자에게 라이선스, 로열티 및 수익 공유, 지분 참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가 보조금 지침 중 지적권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설도 제공 예정
-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 '블루카펫(Blue Carpet)' 정책을 통해 기업가 교육, 직원 주식옵션 과세 측면, 국경 간 고용 추진. EU 블루카드 지침의 활용도 확대하며, 비EU 창업자 대상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을 장려할 것
-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산업계 사용자를 위한 기술 및 연구 인프라 접근 헌장(Charter of Access)을 통해 스타트업·스케일업의 장비 및 시설 접근 조건을 단순화·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안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350

2] 집행위, 유럽 연구기술 인프라 전략 의견수렴 결과(6.2)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구·기술 인프라 전략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을 실시
 - 'Have your Say' 포털을 통해 4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총 29개국에서 441건의 응답을 접수. 참여 기관으로 학계,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일반 시민을 포함
 - 의견수렴에 참여한 EU 회원국 19개국 중 독일, 스페인, 벨기에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비EU국 10개국 중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임
 - 집행위는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전략에 관한 집행위 커뮤니케이션 준비 예정
- 주요 의견 수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규 이용자,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인프라 접근성 개선
- 인프라 용량과 운영을 위한 장기적 자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 보장
- 과학적 데이터 생성 기관으로서 연구 인프라의 디지털화, 데이터 상호운용성, 인공지능 통합 발전
- 산업 수요 및 EU 전략 우선순위에 맞춘 기술 인프라 조정
- 인프라 간 조율 강화

- 많은 응답자가 과학적 우수성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인프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응답자들이 특히 관련성 높다고 지목한 분야로는 보건, 환경, 에너지, 디지털, 우주 등이 있으며, 구체적 과제로 유전체학, 암 연구, 청정 에너지, 해양 과학, 디지털 인프라, 우주 기술을 언급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feedback-call-evidence-european-strategy-research-and-technology-infrastructure-shows-strong-2025-06-02_en

③ 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 참여확대 성과 검토 미흡 ... 유럽의회 전담팀 지적(5.28)

- 유럽의회 내 비공식 참여확대(Widening) 전담팀은 최근 발표된 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에 대해, 참여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
 - 전담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EU 내 연구혁신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참여확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
 - 유럽의회 의원이자 Widening 전담팀 창립자인 Lakos는 보고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언급
- Lakos 의원은 특히 평가 보고서가 참여확대 수단 간의 상호 연계성이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지적
 -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The Guild)의 고등교육정책 책임자인 Didak 역시 참여확대국의 전체 성공률이 향상된 점은 긍정적이나, 유럽연구위원회(ERC) 및 유럽혁신위원회(EIC) 등 분야별 성과 분석이 부재했다고 평가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 초기 3년간 참여확대국 자금 지원 비율이 증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정책적 함의와 구조적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고 우려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의 초기 3년간 15개 참여확대 국가가 수령한 총 자금 비중은 9%에서 14%로 증가했으며, 이들 국가는 전체 협력 프로젝트의 58%에 참여, 이는 호라이즌 2020 당시의 47% 대비 증가한 수치
 - 전담팀의 Lugmayer는 결과의 함의와 잠재적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분석. 또한 참여확대 정책이 연구관리 및 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음에도, 과거 공모사업의 실제 효과(참여율, 성공률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음을 지적

- 유럽 과학 이니셔티브의 집행이사 Dietl도 해당 보고서 데이터가 이미 알려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참여확대국 및 연구 커뮤니티의 규모나 인건비, 연구 여건 등 중요한 맥락적 요소를 간과했다고 지적
- Lakos 의원은 핵심 국가들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범유럽 협력과 혁신 생태계 축진의 필요성을 강조
 - Lakos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핵심 국가들이 호라이즌 유럽 전체 자금의 51% 이상을 수령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수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EU 전역에 걸친 협력 및 혁신 생태계 축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esearch-and-innovation-gap/horizon-europe-review-missed-opportunity-assess-widening-task
----	---

4 혁신적 연구에 불리한 유럽연구위원회(ERC) 평가 구조, 고위험 연구 지원 본래 취지 약화해(5.27)

- 최근 분석은 ERC의 혁신적 연구자에 대한 선정률이 낮은 것에 대해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
 -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럽연구위원회(ERC)는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혁신적 연구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가 오히려 선정에서 불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ERC 평가 패널이 제안서 과부하로 인해 지원자의 성공에 대한 인용 기반 지표를 구글링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됨
- 평가에 있어 연구의 참신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함
 - 분석은 신청자의 이전 연구 기록을 기반으로 한 대리 지표를 사용하여 그들이 이전 논문에서 참조한 학술지 조합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참신성을 측정
 - 신청자의 과거 논문이 다학제적·비정형적 인용 구조를 가질수록 참신성이 높다고 간주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이력을 가진 연구자들의 보조금 선정 확률이 낮은 경향이 확인됨
 - 특히 명문 기관 소속이 아닌 초기 경력 연구자일수록 그 편향이 더욱 두드러졌음
 - 다만, 이미 인용 실적이 높거나 권위 있는 기관 소속 연구자의 경우, 참신한 연구 이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음
 - 한 ERC 대변인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발표
- ERC 심사위원들은 제안서 과다로 간접 지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심사위원들이 수백 건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저널 인용지수(JIF) 같은 간접 지표를 참고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Veugelers 교수는 본인 역시 심사 시 JIF를 검색한 경험이 있음을 언급. 동 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ERC는 2021년부터 JIF 활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함
- ERC가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지원한다는 초기 목표가 점차 약화되었다고 평가됨
 - 심사위원들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패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고위험·고수익 연구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선호되고 있음
 - Veugelers는 ERC 설립 이후 고위험·고수익 연구에 대한 강조가 점차 약화되었으며, 대신 ‘우수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평가
 - 또한, 최근 ERC는 ‘잠재적으로 혼란스럽고 문제적’이라며 평가 기준에서 ‘고위험·고수익’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 분석은 혁신성 중심의 평가 방식을 위한 실험적 제도 도입을 제안
 - Veugelers 교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골든 티켓’ 제도를 ERC에 도입해볼 것을 제안함. 이는 개별 심사위원이 다수 반대와 무관하게 한 건의 제안을 단독 승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보수성에서 벗어나 혁신적 제안을 구제할 기회를 제공
 - 아울러 다학제 프로젝트나 실패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ropean-research-council-has-been-biased-against-researchers-novel-ideas-study-argues>

5 ERC 워크프로그램 2026~2027, 신청방식 및 평가절차 변경(6.3)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2026~2027년 동안 보조금 신청 방식과 평가 절차를 변경
 - 2026년부터 ERC 보조금 신청 방식이 변경되어 제안서를 두 파트로 구분해야 함. 첫 번째 파트(기존의 Extended Synopsis)에서는 프로젝트 목표와 연구 전략을 설명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설명해야 함
 - ※ (파트1) 프로젝트 아이디어, 목표, 연구분야 기여도, 연구전략; (파트2) 연구 실행 계획, 방법론, 위험 평가, 대응 전략, 요청된 자원의 정당성
 - 두 번째 파트는 Starting, Consolidator, Advanced 그랜트의 경우 최대 7페이지, Synergy 그랜트의 경우 최대 10페이지로 제한됨
 - 이러한 변경은 ERC가 혁신적 연구 이력을 가진 신청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비판이 나온 가운데 시행됨
 - 평가 절차도 개편되어, 1단계에서는 과학적 제안서와 지원자의 이력 및 실적을 평가. 이를 통과한 신청서는 2단계에서 프로젝트 자원 배분, 연구 시간 투입 계획,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1단계 평가요소 재검토)
- ERC는 또한 최근 국제적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
 - ERC는 2026년부터 제3국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최대 200만 유로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 지원금은 인건비 등 인력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ERC는 집행위의 국제 연구 인재 유치 전략인 'Choose Europ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대 7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 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이 제도는 2026년 ERC 작업 프로그램 개정안에 포함되어 2025년 말까지 채택될 예정
 - 2026년에도 폭력 피해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이 지연된 연구자들을 위해 Starting 및 Consolidator 그랜트 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할 예정

○ 한편 재신청 기준은 더욱 엄격해짐

- Synergy 그랜트 평가 1단계에서 B등급을 받은 신청자는 다음 해 동일 프로그램에 재신청할 수 없음
- 이미 ERC 보조금을 수령 중인 연구자가 새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프로젝트가 2026년도 공고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될 예정이어야 함
- 2027년부터 Starting, Consolidator 그랜트에 대한 자격 기간을 확대할 예정. Starting 그랜트는 박사학위 취득 직후부터 10년 이내, Consolidator 그랜트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에서 15년 이내 신청 가능
- 연구자들은 커리어 기간 동안 Starting 그랜트와 Consolidator 그랜트를 각각 한 번씩만 수령할 수 있음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r-d-funding/european-research-council/erc-updates-its-2026-27-work-programmes>

⑥ 유럽우주국(ESA), 스위스에 딥테크 혁신센터 개소 ... 우주 분야 연구성과 상용화 가속 기대(5.28)

- 유럽우주국(ESA)은 스위스에 딥테크 혁신센터를 신설하며 연구기술의 우주 응용분야 도입을 강화함
 - 유럽우주국은 스위스에 '유럽 우주 딥테크 혁신센터(ESDI)'를 개소하고, 양자, 데이터, 소재 기술 등 우주 관련 첨단 분야 연구의 실용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
 - ESDI는 스위스 혁신파크 인노바레(Innovaare)에 위치하며, 폴 세리 연구소(PSI)와 연계된 첫 번째 플랫폼으로 'ESA 파이랩 스위스(Esa Phi-Lab Switzerland)'가 운영될 예정
- ESA는 유럽 딥테크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본 센터를 설립함
 - ESA의 Aschbacher 사무총장은 "이번 개소는 ESA와 스위스의 공동 노력으로 혁신과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상징"이라며, 센터가 유럽의 딥테크 생태계를 강화하고 스위스와 유럽의 해당 분야 리더십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 ESA는 우주 분야가 유럽 내에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3개년 예산을 기존 169억 유로에서 200억 유로 이상으로 증액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ESDI는 민관 협력을 통해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 ESA는 혁신센터가 공공 및 민간 R&D 기관,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유럽 전역의 우주 전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
 - 특히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역량을 높이고, 우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ی겠다고 강조함
 - 개소식에서 ESA와 스위스 딥테크 주요 관계자들이 우주 딥테크 커뮤니티 확장과 협력 모색을 위해 MoU를 체결함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innovation/2025/5/European-Space-Agency-opens-deep-tech-innovation-centre.html>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집행위,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발간(6.4)

-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번째 EU 차원의 ERA 보고서는 ERA 정책 아젠다(2022-2024)의 이행 성과를 평가함
 - 보고서는 유럽 연구혁신 협정(Pact for R&I)에 명시된 ERA 공동 우선순위에 대한 진행 상황과 ERA 정책 의제 이행에 대한 18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고, 2022~2024년 동안 ERA 목표 달성 기여도를 추가적으로 평가
- 평가 결과 ERA 정책 아젠다 이행이 2022~2024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네 가지 우선순위에서 ERA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함
 - (지식의 내부 시장 심화) EOSC 운영 개시, 오픈 액세스 출판물 증가, 연구평가개혁연합(CoARA) 설립,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계획 의무화, 연구경력 프레임워크 및 ERA 인재 플랫폼 구축, 국제전략 강화, 연구인프라 로드맵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
 - (녹색·디지털 전환 대응 및 사회 참여 확대) 전략에너지기술 계획(SET Plan) 업데이트, 유럽 생태계 및 가치사슬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전개
 - (연구혁신 우수성 접근성 확대) 참여확대국을 중심으로 우수성 허브(Excellence Hubs), 우수성 인증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확대 및 연구관리 전문성 강화
 - (연구혁신 투자 및 개혁 강화) 심화된 정책 대화, 새 ERA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통한 투자 정렬·조율 강화, 혁신 생태계 투자 확대, 연구경력 개혁 및 연구-산업 연계 강화 성과 도출

- 보고서는 또한 공동 창출 역량 강화, ERA 정책 아젠다 영향력 확대, 포용성 증진, 회원국 간 격차 해소 등 향후 ERA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제안을 제공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ra-full-swing-second-eu-level-report-demonstrates-significant-achievements-implementing-era-policy-2025-06-04_en

2 유럽대학교협회(EUA), 지속가능한 학문 커리어를 위한 핵심 원칙에 관한 보고서 발간(5.27)

- 유럽대학교협회(EUA)는 유럽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문 커리어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EUA는 유럽의 대학들이 직면한 인구 변화, 재정 축소, 고용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문 커리어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분석
- EUA는 학문 커리어의 개혁을 위한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
 - 학문 커리어의 전문성 개발과 보상, 인정을 체계화할 필요성
 - 유럽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경력 경로 구축
 - 경쟁과 동료애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기관의 중요한 역할
 - 가장 취약한 계층인 초기 경력 연구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강화
 - 학문적 경력과 고등교육의 사회적 기반 간 연관성
- 이러한 원칙들은 고등교육 기관 내부 성찰과 실천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마련됨
 - 아울러, 각국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제도적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언급
 - EUA는 회원 대학들이 보고서를 참고해 내부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를 주도하길 촉구
 - 이번 보고서는 2024년 발족된 EUA의 학문적 경력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주도로 작성됨

출처 <https://www.eua.eu/publications/positions/key-principles-for-attractive-and-sustainable-academic-careers.html>

③ 유럽통계청, 제3국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무역 증가 통계 발표(6.3)

- 유럽통계청은 2023년에 EU의 역외 국가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무역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
 - 2023년 EU 국가는 연구개발 서비스 부문에서 594억 유로를 EU 역외 국가로 수출하고, 1,026억 유로를 수입해 432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 수출과 수입은 모두 2022년 대비 증가했으며, 수출은 9.0%, 수입은 16.6% 증가함
 - 미국이 2023년 EU의 최대 연구개발 서비스 무역 파트너로, 전체 수출의 약 절반(281억 유로, 47.3%)이 미국으로 수출됨
 -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은 스위스(86억 유로, 14.4%), 세 번째는 영국(77억 유로, 13.0%)임
 - 수입의 경우에도 미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462억 유로(45.0%)를 기록함
 - 그 다음으로 영국(98억 유로, 9.6%)과 인도(66억 유로, 6.4%)가 뒤를 이음

출처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stat-news/w/ddn-20250603-1>

4 [ISB편딩레이더] 양자 관련 EU 주요 공고(6.3)

- 2018~2024년 동안 EU는 약 80억 유로를 양자 기술 분야에 투자함
 - 6월 3일을 집행위의 양자 전략 관련 의견 수렴이 완료되었으며, 유럽 양자전략 발표는 현재 7월 2일로 예정됨
 - 양자 전략은 회원국 간 분산된 연구 노력을 통합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범유럽 양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호라이즌 유럽

- 공고: [Investigate quantum sensing and computing applied to air traffic management](#)
- 개요: 양자 센싱 및 컴퓨팅 기술을 항공 교통 관리에 적용하는 연구
- 일정: 9월 16일 마감

호라이즌 유럽

- 공고: [EU-Japan cooperation on the exploitation of quantum space gravimetry data](#)
- 개요: 양자 기반 우주 중력계 자료 활용을 위한 EU-일본 공동연구
- 예산: 50만 유로
- 일정: 9월 25일 마감

호라이즌 유럽

- 공고: [Quantum computing - development of a technology agnostic software stack](#)
- 개요: 기술 중립적인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을 위한 양자 컴퓨팅 연구
- 예산: 1,000만 유로
- 일정: 6월 10일 개시, 10월 2일 마감

호라이즌 유럽

- 공고: [Continuation of the Quantum Technologies Flagship](#)
- 개요: Quantum Technologies Flagship 프로그램 지속 지원
- 예산: 450만 유로
- 일정: 6월 10일 개시, 10월 2일 마감

호라이즌 유럽

- 공고: [Supporting digital partnerships in quantum technologies](#)
- 개요: 양자 기술 분야 디지털 파트너십 지원
- 예산: 800만 유로
- 일정: 6월 10일 개시, 10월 2일 마감

호라이즌 유럽

- 공고: [Security evaluations of post-quantum cryptography primitives](#)
- 개요: 양자 이후 암호기술 기본 구성 요소의 보안 평가
- 예산: 400만 유로
- 일정: 6월 12일 개시, 11월 12일 마감

호라이즌 유럽

- 공고: [Security of implementations of post-quantum cryptography algorithms](#)
- 개요: 양자 이후 암호 알고리즘 구현의 보안성 평가
- 예산: 600만 유로
- 일정: 6월 12일 개시, 11월 12일 마감

호라이즌 유럽

- 공고: [Integration of post-quantum cryptography algorithms into high-level protocols](#)
- 개요: 고수준 프로토콜 내 양자 이후 암호 알고리즘 통합
- 예산: 600만 유로
- 일정: 6월 12일 개시, 11월 12일 마감

디지털 유럽

- 개요: 양자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 지원
- 예산: 1,000만 유로
- 일정: 9월 2일 마감

Eureka

- 개요: 응용 양자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모
- 예산: 각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남아공, 터키, 우크라이나) 펀딩 기관에서 자금 할당
- 일정: 9월 5일 마감

Eureka

- 개요: 캐나다, 싱가포르 기관과 공동으로 양자 기술 등 국제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 지원
- 예산: 1,000만 유로
- 일정: 9월 2일 마감

Innovate UK

- 개요: 양자 센서 및 PNT(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제품·서비스 개발 가속화
- 예산: 1,400만 파운드
- 일정: 7월 2일 마감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quantum-computing/weeks-round-quantum-related-calls>

3. EU 연구성과

1 [성공사례] 소셜미디어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U 지원으로 진행된 ConflictNET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에서 소셜미디어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보급 윤리 문제를 연구함
 - 2018년 이후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 분쟁 당시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의 혐오 표현 방치가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됨
 - 아프리카는 기술 기업들의 주요 신흥 시장으로, 전체 대륙의 75% 이상이 안정적 인터넷 접근이 어려움
 -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생체인식, AI 기반 위기 예측,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프리카 개발사업에 참여 중
 - 현재는 드론과 위성과 같은 신기술로 국가 영향력이 미약한 외딴 지역에도 인터넷 접속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리가 부족할 경우 혐오 발언이 확산되어 폭력을 유발할 위험이 있음
- 소셜미디어가 분쟁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ConflictNET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남
 - 연구팀은 가나, 케냐, 남아공 전역의 시민, NGO, 기술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함
 - 아프리카 지역의 분쟁과 소셜미디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이 분쟁을 촉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
 - 2021년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Tigray) 지역 분쟁 당시 혐오 콘텐츠가 페이스북 등에서 방치된 문제를 폭로한 바 있음
 - 프로젝트는 콘텐츠 중재 실패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

○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권력 불균형에 직면

- 현지 정부나 시민단체의 요구는 거대 기술기업에 의해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아프리카 내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차단을 정부 조치로 지지하는 여론도 확인됨. 프로젝트 책임자인 옥스퍼드대 Stremmler 교수는 “일부 지역 주민은 온라인 상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정부의 일시적 인터넷 차단을 지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
- 실제로 에티오피아 샤샤마네(Shashamane) 지역 사례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한 혐오 게시물 확산에 좌절감을 느끼며 인터넷 중단이 오히려 안전을 지킨다고 인식

○ 프로젝트는 지역 연구자 중심의 협업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음

- 아디스아바바대, 요하네스버그대 등 현지 대학 연구자들과 협업을 지속하며, 연구 종료 이후에도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 프로젝트는 연구 결과를 유엔 인권위원회, 영국 외교부, 국제 NGO 및 아프리카 각국 정부 기관 등에 공유하며 정책적 논의에 기여
- 옥스퍼드대에는 ‘소셜미디어, 분쟁 및 이주 관측소’를 설립해 정책 제안과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할 예정
-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국가 영향력이 제한된 지역에서 기술의 법, 질서, 치안 역할에 관한 연구를 확대 중임

ConflictNET 프로젝트

- 기간 : 2017.08~2024.01
- 예산 : 약 1,499,450.00 유로 (EU 1,499,450.00 유로 지원)
- 총괄 : THE CHANCELLOR, MASTERS AND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OXFORD (영국)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how-social-media-can-drive-conflict-africa-and-why-some-communities-welcome-internet-shutdowns>

2 [성공사례] 유럽 주요 도시를 위한 건강 회랑 공동 설계

- **URBiNAT 프로젝트는 대도시 내 단절된 지역사회를 회복하고자 건강 회랑 개념을 도입함**
 - URBiNAT은 유럽 내 사회주택 밀집 지역 등 소외된 도시 외곽 지역에 물리적 연결성과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솔루션을 적용한 프로젝트임
 - 일부 주민들이 “포르투(Porto)로 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사는 지역이 같은 도시와 단절돼 있다고 느끼는 인식에서 출발함
-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에 물리적 인프라와 사회·문화적 활동을 결합해 포용성을 장려하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 프로젝트에는 유럽 7개 도시와 도시계획, 인문, 지리,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기존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확장하여 도시계획, 대안경제, 인권을 통합하는 접근법을 개발
 - 도시 곳곳을 잇는 ‘건강 회랑(Healthy Corridors)’ 개념을 중심으로 공원, 통로 등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 문화 행사, 참여 기반 디자인 등을 결합
 - 건강 회랑은 전통적 녹지 기반 인프라를 넘어 사회적 응집력과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설계됨
- **프로젝트는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공동체 연계와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창출함**
 - 회랑 조성 대상지를 주민, 정책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며 초기 단계부터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
 - 프로젝트는 참여형 워크숍, 지역 화폐, 공동 정원, 문화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도시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그 결과, 지역 간 네트워크와 실무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도시 간 모범사례 공유와 실천적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짐

-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산 가능성을 보여줌
 - 포르투에서는 진흙길 통행로가 조명과 식재가 있는 회랑으로 정비되었고, 소피아에선 방치된 공간이 주민 참여형 열린 광장으로 탈바꿈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 사례 다수 확인
 - 프로젝트는 자연기반솔루션(NBS) 카탈로그와 URBiNAT 관측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EU 다른 도시로의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 URBiNAT은 향후 후속 프로젝트 및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임
 -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방법론과 도구는 후속 EU 프로젝트인 TRANS Lighthouses, GreenInCities 등에 적용되고 있음

URBiNAT 프로젝트

- 기간 : 2018.06~2024.03
- 예산 : 약 13,666,567.46 유로 (EU 13,019,300.00 유로 지원)
- 총괄 : CENTRO DE ESTUDOS SOCIAIS (포르투갈)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co-creating-healthy-corridors-europes-biggest-cities>